

통상정보연구 메타분석*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이호형(Hohyung Lee)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전자무역학전공 부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학문분야별 논문 수	참고문헌
III. 저자, 인용 분석	ABSTRACT
IV. 논문 키워드	

국문초록

본 연구는 「통상정보연구」의 1999년 창간호에서부터 제18권 4호(2016년 12월)까지 지난 18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통상정보연구」에 2016년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 1047편이다. 학문분야를 본다면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다. 저자는 대부분 대학 소속이었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에 그동안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던 저자는 총 46명인데 이들의 H-지수는 5.6이다. 「통상정보연구」의 2016년 영향력지수(IF)는 1.02이므로 「통상정보연구」의 무역학계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집계된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무역, 중국, 전자무역, 한류, FTA,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무역, FTA, 중국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주제어 : 메타분석, 통상정보연구, 논문분야, 인용, H-지수

* 본 연구성과 또는 결과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 정보를 이용하였음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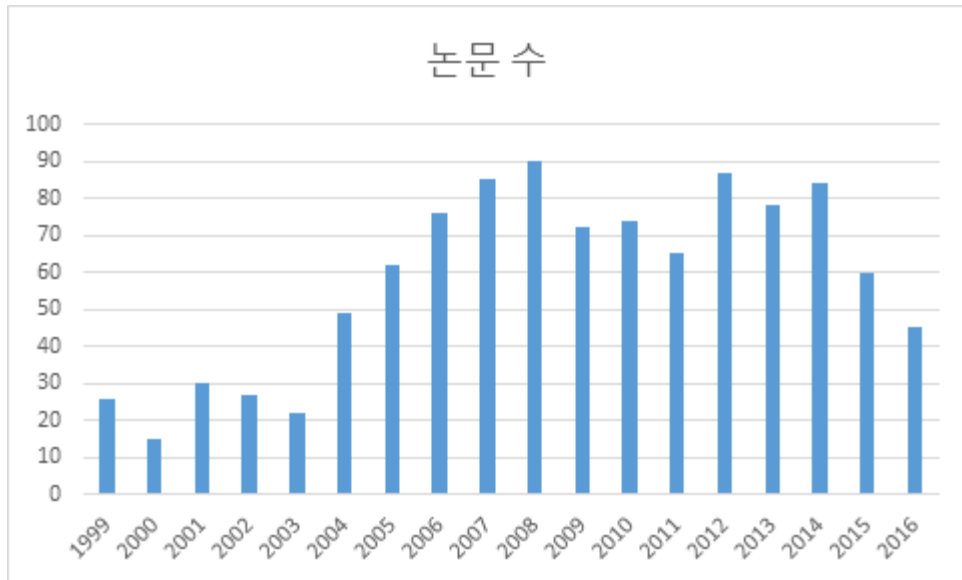
한국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놀랍게 이루어 왔고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1967년 무역액 10억 달러에 머물러있던 한국은 1988년에 무역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무역학자들은 연구 활동으로 한국 무역발전을 조력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학 분야 학회가 창설하고 학술지를 창간하였다.

한국통상정보학회의 「통상정보연구」는 1999년에 창간되어 2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국 통상정보학을 대표하는 학회지이다. 1999년에서 2016년까지 「통상정보연구」에 수록된 논문 편수는 총 1047편이다. 「통상정보연구」의 연간 논문 편수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26편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 62편으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 90편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부터 연간 논문편수가 60편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논문 편수만을 놓고 본다면 1999년~2004년은 태동기, 2005년~2014년은 도약기, 2015년 이후는 성숙기로 정의할 수 있다. 「통상정보연구」는 2003년까지는 연 2회, 2004년 연 3회, 2005년부터 연 4회 발간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연 5회 발간된 적이 있다.

통상정보연구는 2003년 7월에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 1월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됨으로써 무역학 분야의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정보연구」는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원들의 기대에 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 4회 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상정보학은 새로이 부상되는 연구 분야로서 지역정보를 포함한 통상정보, 관련법규, 통상정보시스템, 전자문서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논문투고 대상을 특별히 정해진 학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통상정보와 관계있는 산업 실무자까지 확대하여 이론과 실무가 잘 융합하는 통상정보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상정보연구」 전체 논문의 학문 분야별 논문 수, 논문 주저자의 소속기관, 전공분야,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율 등에 대해 먼저 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통상정보연구」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에 대한 인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통상정보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와 「통상정보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1] 통상정보연구 논문 수 추이

II. 학문분야별 논문 수

「통상정보연구」 논문 전체를 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회에 의한 5개 학문 분야로 분류하여 논문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총 1047편 가운데 전자무역이 527편(50.3%)으로 가장 많고 상품 및 서비스혁신이 239편(22.8%), 지역통상정보가 127편(12.2%), 통상법제도 80편, 통상협상 74편 순이다.

<표 1> 분야별 논문 수

분야	논문수	비중(%)
전자무역	527	50.3
상품및서비스혁신	239	22.8
지역통상정보	127	12.2
통상법제도	80	7.6
통상협상	74	7.1
합계	1047	100

1999년~2004년의 「통상정보연구」 태동기에는 전자무역 분야 논문이 70~80%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분야별 논문 편수가 많았지만 그 비중이 적었다. 「통상정보연구」의 학문분야 다양성은 조금씩 증대되었지만 전자무역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지속적인 논문 게재는 부족한 시기였다.

2005년~2014년의 「통상정보연구」 도약기에도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분야별 논문 편수가 많았는데 상품 및 서비스혁신 관련 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3년에 46.7%를 차지했고 전자무역 관련 논문은 2012년부터 급감하여 20% 내외에 머물렀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 게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통상정보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 「통상정보연구」 성숙기에는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전자무역,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분야별 논문 편수가 많았다. 이 시기에 지역통상정보 관련 논문의 급증, 전자무역 논문의 비중 축소, 새로운 연구 분야인 상품 및 서비스혁신 논문의 도약을 눈여겨볼만하다.

Ⅲ. 저자, 인용 분석

1. 학문분야별 저자 분석

「통상정보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의 전공분야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사이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저자 중 197명의 전공분야는 퇴직 및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한국연구재단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저자 한 명이 「통상정보연구」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숫자를 정확히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 편수에 해당하는 저자를 조사한 것이다. 즉, 특정 전공분야가 많다면 해당 전공분야의 저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분야에서 게재된 논문 수가 많은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 주저자의 전공분야에 따른 논문 편수는 전자무역(39.7%), 무역실무 및 무역경영(13.7%), 국제경영(8.4%), 국제운송 및 물류(6.9%)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전공분야는 10개이다. 조사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통상정보연구」가 다양한 전공분야의 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학술지라는 사실이다.

〈표 2〉 논문 주저자의 전공분야 분포

주저자 전공분야	논문 수	비중(%)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416	39.7
무역실무 및 무역경영	143	13.7
국제경영	88	8.4
국제운송 및 물류	72	6.9
무역계약관습 및 통상법	40	3.8
무역정책	30	2.9
국제투자 및 해외지역연구	22	2.1
국제상품 및 관세	20	1.9
무역보험 및 서비스무역	19	1.8
기타	197	18.8
합계	1047	100

주저자의 소속기관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92.9%가 대학 소속이다. 연구소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주저자인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연구소 및 공공기관, 기업 소속 학자의 논문투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통상정보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밑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 주저자의 소속 기관

주저자	구분	논문 수	비중(%)
	대학	973	92.9
	연구소 및 공공기관	46	4.4
	기업	28	2.7
	총계	1047	100

「통상정보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주저자의 소속 기관 중 조선대학교에서 총 64편, 중앙대학교에서 총 62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6년까지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5곳이었다. 그 동안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150개에 달해 「통상정보연구」는 국내 대부분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한 것이다.

〈표 4〉 주저자 소속기관의 논문 게재 수

기관	논문 수	비중(%)
조선대학교	64	6.1
중앙대학교	62	5.9
단국대학교	29	2.8
동국대학교	24	2.3
부산대학교	23	2.2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논문 투고자의 지역별 분포를 학술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통상정보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1047명 주저자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서울, 경기, 인천이 3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50%가 넘지 않았고, 경상, 전라, 충청을 합한 비중이 55.7%에 달하는 것은 「통상정보연구」 게재자의 지역 분포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은 전국적인 학회지임을 증명한다.

〈표 5〉 통상정보연구 게재 주저자의 지역 분포

지역	저자 수	비중(%)
서울, 경기, 인천	343	32.8
강원	63	6
경상	177	16.9
전라	195	18.6
제주	17	1.6
충청	211	20.2
외국	41	3.9
합계	1047	100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에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과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통상정보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6〉 연구비 수혜 논문 비중

	논문 수	비중(%)
일반 논문	841	80.3
연구비 수혜 논문	206	19.7
총계	1047	100

2. 논문 게재자 개인별 성과

「통상정보연구」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총 46명에 달했다. 조선대학교의 이재홍 교수는 가장 많은 1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9명이다.

〈표 7〉 「통상정보연구」 10편 이상 게재자

성명	소속	연구 분야	논문 수
이재홍	조선대학교	무역실무 및 무역경영	19
김창봉	중앙대학교	국제물류/유통	16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13
박문서	호원대학교	무역보험 및 서비스무역	12
홍성현	산학연구원	국제경영	11
박종돈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무역경영)	11
이충배	중앙대학교	국제운송 및 물류	11
이상진	건국대학교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10
정분도	조선대학교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10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에서는 각 연구자가 2004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인용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통상정보연구」 논문 수는 「통상정보연구」 창간호부터 게재된 논문 수를 분석하였지만, H-지수 등 인용 분석은 2004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통상정보연구」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무역학 분야 학술지에도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H-지수가 높은 우수한 연구자가 많았다. H-지수는 개별 연구자의 양적 연구성과보다 학계 영향력을 나타내는 질적 연구성과 지표로 최근 많이 활용되는 하나의 지표이다

(김관준, 이재윤, 2010). Hirsch(2005)에 의해 제안되었으므로 Hirsch Index 또는 Hirsch number 등으로 불린다. H-지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어떤 연구자가 게재한 논문 중에서 논문 5편이 적어도 각각 5회 이상 인용되고, 5회 이상 인용된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이 5회 이하 인용되었을 때 이 연구자의 H-지수는 5가 된다.

「통상정보연구」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46명 연구자의 H-지수 평균은 5.6이다.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학문분야 대분류를 사회과학, 중분류를 무역학으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평균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연구자 순위를 보여주는데 총 522명 연구자의 H-지수 평균은 3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2016년 자료 기준으로 「통상정보연구」의 지난 5년간 영향력지수 (Impact Factor)는 1.02로 무역학 분야 17개 학술지 중 5위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 수 상위 46명 연구자의 H-지수 평균이 5.6라는 사실은 「통상정보연구」가 보여주는 질적인 수준을 증명한다.

다음 <표 8>은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피인용 횟수가 높았던 논문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피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은 「통상정보연구」에 가장 많이 게재된 전자무역 분야의 논문이 아니라 타 학회지에서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의 피인용 순위

저자	논문명	발행년월	피인용 횟수
고경일, 노승재, 임효창	한국전통식품의 국제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2007.06	33
김경남	전시회의 참가동기와 서비스품질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08.06	32
김상조	온라인 경험가치가 소비자 신뢰 및 감정에 미치는 영향	2008.03	31
이운영, 강계삼	일본 내 한류가 원산지효과에 미친 영향	2006.12	31
송채현, 송선옥	항만물류서비스의 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부산·광양항의 해운선사를 중심으로	2004.08	29
이희승, 전해진, 김기홍	국제의료관광 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2010.12	26
최문성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	2012.03	24
고용기, 배정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대구·경북지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2008.06	23
김성엽	웹 사이트의 품질 결정요인과 고객만족도, 몰입,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4.04	22

<표 9>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로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통상정보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의 순서를 보여준다. 「통상정보연구」는 「통상정보연구」 자체 인용횟수를 제외하고 「무역학회지」, 「관세학회지」, 「국제상학」, 「e-비즈니스연구」, 「산업경제연구」, 「국제지역연구」, 「무역상무연구」, 「국제경영연구」, 「무역연구」 학술지 순으로 많이 인용하였다.

<표 9> 「통상정보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

순위	학술지명	발행기관	주제 분류	인용비율(%)	인용횟수(건)
1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무역학	16.3	587 / 3605
2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8.9	322 / 3605
3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무역학	6	217 / 3605
4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무역학	3.2	116 / 3605
5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무역학	2.9	106 / 3605
6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경제학	2.1	76 / 3605
7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경제학	2	71 / 3605
8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학	1.9	70 / 3605
9	국제경영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경영학	1.6	57 / 3605
10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학	1.5	53 / 3605

<표 10> 「통상정보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

순위	학술지명	발행기관	주제 분류	인용비율(%)	인용횟수(건)
1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무역학	16.3	587 / 3605
2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학	3.7	207 / 5599
3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4.9	186 / 3798
4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무역학	6.3	176 / 2816
5	전자무역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무역학	9.6	168 / 1754
6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무역학	3.2	166 / 5156
7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무역학	5.1	152 / 3003
8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학	3.3	64 / 1951
9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학	4.9	62 / 1266
10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경영학	1.1	51 / 4767

<표 10>은 「통상정보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 순서이다. 「통상정보연구」 자체 인용횟수를 제외하고 「무역연구」, 「무역학회지」, 「관세학회지」, 「전자무역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상학」, 「무역상무연구」, 「무역보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학술지에서 「통상정보연구」를 많이 인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상학」, 「무역보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의 경우 「통상정보연구」에서 그 학술지를 인용한 횟수보다 그 학술지에서 「통상정보연구」를 인용한 횟수가 더 많다. 「통상정보연구」가 그 학술지에 학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통상정보연구」에서 많이 인용하는 「산업경제연구」, 「국제지역연구」, 「국제경영연구」는 「통상정보연구」를 인용하는 횟수가 적은 점도 확인할 수 있다.

IV. 「통상정보연구」의 논문 키워드

2002년부터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데 핵심 키워드와 주요 키워드의 변화를 통해 2002년 이후 「통상정보연구」의 연구 동향을 <표 11>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11> 「통상정보연구」 키워드(2002~2016)

연도	핵심 키워드	주요 키워드
2002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전자거래, 전자신용장, eUCP, UCP, 전자채시, Web+EDI, 고객관계관리(CRM), 기술수용모델(TAM), 인터넷, e-비즈니스
2003	인터넷	인터넷, 전자알선사이트, 사이버물류, 전자무역, e-무역상사, 물류정보
2004	서비스무역	OEM+업체, FpML, 지역경제, OTC+derivatives+market, 항만개발, 경제효과, 대외무역법, XML
2005	중국	Trade+Act, Chinese+Trade+Law, 고객만족, 중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모델, China, 조정, ODR, 분쟁해결
2006	글로벌+전자무역	국제운송, Social+support, European+employee, 글로벌, 글로벌+전자무역+구현모델, 삼성전자이미지, 동종+또는+직접경쟁적인+제품, 한국이미지
2007	한류	엔터테인먼트+콘텐츠, One+Source+Multi-+Use, 협상, 한류, 갈등관리, 규범, 조직갈등+관리
2008	FTA	Export+insurance, TSI, e-Trade, Trust, Electronic+Commerce, RCA, Partnership, impulse-response, Trade+in+Services, Supply+Chain+Management

연도	핵심 키워드	주요 키워드
2009	없음	innovation, e-logistic+system, product+and+market+knowledge+spillovers, trade+regulation, and+foreign+capital, RTSI, logistic+information+system
2010	FTA	FTA, China, Logistics, e-Trade, e-Trade+Platform, VAR, Human+Resource+Management, EFT, Agriculture, WTO, UCITA, Learning+Orientation, Exchange+rate
2011	전자무역	전자무역, 자유무역협정, 덤핑마진,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수출보험, 원산지이미지
2012	FTA	FTA, 중력모형, 중국, 방향+거리함수, 녹색물류, 전자무역, 한·중+FTA, 총체적+ML지수, 기술무역, 녹색성장, 효율성, GML, 수출성과, 환율, 자유무역협정, 경제성장, 생산성
2013	전자무역	수출마케팅, SNS, 무역기업, 산업내무역, 대응전략, 관세인하, 무역자유화, 무역창출효과, 소비자+후생, 해외직접투자, 중국물류산업, 기업성과, 기업국제화, 금융위기
2014	중국	경쟁력, 고정효과모형, 중견기업, 무역특화지수, 경영성과, 결정요인, 직접투자, FTA, 진정상품, 병행수입, 화환신용장통일규칙, 효율성, 수출성과, 기업성과, 국제표준은행관행, 중소기업, 구매의도, FTA+활용도
2015	중소기업	수출성과, 국가이미지, 수출, 서비스품질, 산학협력, 신뢰, 한·중+FTA, 국제경쟁력, 기업가정신, 전자무역, 한류, 수출중소기업, 무역원활화
2016	중소기업	해외직구, FTA, 수출성과, 해외직접구매

전자무역은 「통상정보연구」 창간 후 2001년까지 계속 핵심 키워드였고 2006, 2011, 2013년에도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¹⁾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²⁾ 한국 전자무역의 시작은 1991년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에 이 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웹기반의 전자무역을 포함한 새로운 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과 함께 2008년부터 국가적 전자무역시스템인 uTradeHub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전자무역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자무역의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통상정보연구」는 관련 연구의 진행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통상정보연구」에서 전자무역 관련 키워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전자무역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가 필요하다.

2008, 2010, 2012년은 FTA가 핵심 키워드였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³⁾ 2017년 6월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이다. 한-중미 FTA는 타결 선언, 가서명 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 총생산 대비 77%에 달하므로 한국의 FTA 경제영토가 그 만큼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FTA 협상중인 국가는 한국-중국-일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인데 RCEP 타결은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보연구」에서 FTA와 관련된 논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05, 2014년에 「통상정보연구」의 핵심키워드를 차지한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따돌리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고, 2007년부터 일본을 따돌리고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이 되었다.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정보연구」 내에서도 중국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논문들이 활발하게 게재되고 있다.

2015, 2016년은 핵심키워드가 중소기업과 수출성과였는데 한국은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를 높이는 데 힘쓰므로 산·관·학 모두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이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89개의 수출지원제도가 존재한다고 하고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제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이다. 한국통상정보학회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때 수출성과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상정보연구」 전체 논문의 학분 분야별 논문 수, 논문 주저자의 전공분야,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 정보를 이용하여 「통상정보연구」 저자에 대한 인용 분석과 「통상정보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와 「통상정보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도 알아 볼 수 있었다.

3)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통상정보연구」에 2016년까지 수록된 총 1047편 논문 가운데 527편(50.3%)으로 가장 많고 상품 및 서비스혁신이 239편(22.8%), 지역통상정보가 127편(12.2%), 통상법제도 80편, 통상협상 74편 순이다. 「통상정보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주저자의 전공분야는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무역실무 및 무역경영, 국제경영, 국제운송 및 물류, 무역계약관습 및 통상법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 다양한 지역의 저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다. 주저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연구소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27.2%이다.

「통상정보연구」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총 46명이며 이들의 H-지수 평균은 5.6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학문분야 대분류를 사회과학, 중분류를 무역학으로 설정했을 때 총 522명 연구자의 H-지수 평균은 3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2016년 자료 기준으로 「통상정보연구」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는 1.02로 무역학 분야 17개 학술지 중 5위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상정보연구」가 보여주는 질적인 수준과 영향력을 증명한다.

「통상정보연구」는 「통상정보연구」 자체 인용횟수를 제외하고 「무역학회지」, 「관세학회지」, 「국제상학」, 「e-비즈니스연구」, 「산업경제연구」, 「국제지역연구」, 「무역상무연구」, 「국제경영연구」, 「무역연구」 학술지 순으로 많이 인용하였다. 「통상정보연구」 자체 인용횟수를 제외하고 「무역연구」, 「무역학회지」, 「관세학회지」, 「전자무역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상학」, 「무역상무연구」, 「무역보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학술지에서 「통상정보연구」를 많이 인용하였다.

2002년부터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핵심키워드는 전자무역, 중국, FTA, 중소기업 등인데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통상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통상정보연구」는 한국 무역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통상정보학의 핵심 학회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경일, 노승재, 임효창, “한국전통식품의 국제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pp.375-397.
- 고용기, 배정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189-209.
- 김경남, “전시회의 참가동기와 서비스품질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211-232.
- 김상조, “온라인 경험가치가 소비자 신뢰 및 감정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117-135.
- 김성엽, “웹 사이트의 품질 결정요인과 고객 만족도, 몰입,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51-74.
- 김관준, 이재윤, “학술지 영향력 측정을 위한 h-지수의 응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pp.269-287.
- 송채현, 송선옥, “항만물류서비스의 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361-384.
- 이운영, 강계삼, “일본 내 한류가 원산지효과에 미친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231-254.
- 이희승, 전해진, 김기홍, “국제의료관광 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pp.345-362.
- 최문성,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67-86.
- Hirsch, J. E, “An index to quantify an individual’s scientific research outpu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2, 2005, pp.16569-16572.

ABSTRACT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Hohyung Lee*

This study is a meta-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over the last 18 years from the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to December 2016. 1047 papers we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until 2016. Many articles appeared in the order of electronic trade field,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field, regional trade information field, trade law system field, and trade negotiation field. There are more than 15 major fields of authors who have published more than 20 paper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i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by scholars in various major fields. Most of the authors belong to universities and the proportion of papers that receive research grants is 19.7%. 46 authors have published more than 5 papers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and their H-index is 5.6. Influence Index (IF)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in 2016 is 1.02. The main keywords of the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are e-commerce, Internet, service trade, China, e-trade, Korean Wave, FTA, SM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Key Words : Meta-analysi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Research field, quotation, H-index

* Associate Professor, Dpt. of International e-Trade, Keimyung University